



Analyst 권순우 · 02-3773-8882 · soonwoo@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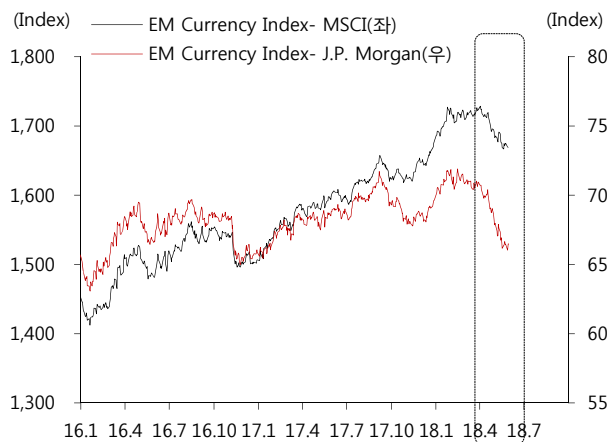


- ✓ 신흥국 통화지수는 18년 2분기부터 방향성 전환
- ✓ 높은 기타시장 비중으로 신흥국 통화의 영향력이 높아짐
- ✓ 단기적으로 신흥국 통화의 원화대비 약세는 지속될 전망
- ✓ 2분기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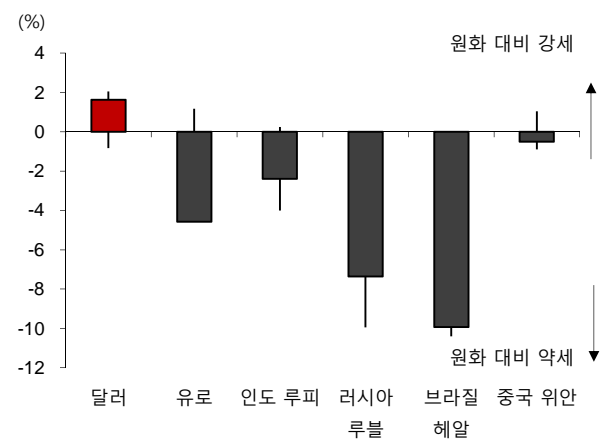
### 있고 있던 신흥국 통화의 변화. 향후 방향성에 주목

-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지표 혼조, 신흥국 위기설 등의 이슈로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당사에서는 특히 18년 2분기에 접어들며 방향성을 전환한 신흥국 통화지수에 주목
- 자동차섹터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관찰하던 환율은 원/달러, 원/엔, 원/달러는 수출과 현지 판매에 따른 판가와 원가, 판매보증충당금과 같은 본업,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 원/엔은 일본업체와의 Pair-trading 투자아이디어에 영향
- 하지만 해외진출 확대 이후 높아진 신흥시장의 비중으로 신흥국 통화의 영향도 높아짐. 상대적으로 비싼 헤지(hedge)비용으로 해당 환율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실적변동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특히 중소형 부품사에 큰 영향. 13년부터 진행된 신흥시장의 수요 사이클에서 해당시장의 통화기치가 실적과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높음을 확인
- 당사 매크로에서는 단기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하락이 제한적으로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년 동기 대비 낮은 평균환율은 고려할 필요. 다만 신흥국 통화의 경우, 원화 대비 약세 현상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 작용 예상. 장기적 약세로 돌입한다면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재부각될 가능성 존재
- 당사는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 이후 단기간에 재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면, 결국 자동차섹터의 투자포인트는 본업과 배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원/달러와 원/엔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과거 대비 본업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진 신흥국 통화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

신흥국 통화지수 - 18년 2분기 접어들며 방향성 전환



원화 대비 주요 통화의 분기변동성- 18.2Q (4~5월 기준)



자료: Bloomberg, SK 증권

자료: Bloomberg,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